

레위기

■ 다섯 가지 주요 제사_속죄제와 속건제 (240619)

1. 속죄제의 예물과 의식

1.1. 속죄제의 명칭

1.1.1. 속죄제는 히브리어 "하타트"(חָטָא)의 번역

1.1.2. 다소 혼선을 야기하는 명칭

1.1.3.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는 () 와 관련

- A.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함 → ()이 필수적 요소(히 9:22)
- B. 죄를 위한 제사에는 피흘림이 필수적(히 9:22)
- C. 다른 제사들(번제, 화목제, 속건제)도 이와 같은 "()"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

1.2. 속죄제의 시기

1.2.1. 의도하지 않거나, 부지불식 중에 범하게 된 죄나 부정(레 4:13)

- A. 출산과 피부병, 육체적 유출과 사고에 의한 상해
- B. 짐승과 곤충의 사체를 만지게 된 경우

1.2.2. 자기의 의무를 ()해서 발생하게 된 죄나 부정(레 5:1)

- A.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해 버린 경우(레 5:1)
- B. 맹세한 것을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경우(레 5:4)

1.2.3. 뒤늦게 깨닫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울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됨(레 4:14)

1.3. 속죄제의 예물

1.3.1. 예배자의 ()에 따라 다양한 제물이 사용

- A. 제사장과 회중(일종의 의회[민 1:2-3])—수송아지(레 4:3 13-14)
- B. 족장—수염소(레 4:22-23)
- C. 평민—암염소, 어린 양(암컷),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곡식가루(레 4:28, 32; 5:7, 11)

1.3.2. 상대적으로 번제물보다 덜 귀한 제물을 사용 → 번제(수컷 제물)가 더 주요한 제사!

1.4. 속죄제의 의식

1.4.1. 예배자는 짐승을 회막문에 데려와 안수하고, 죽임

1.4.2. 제사장은 피를 받아 일부를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음

- A. 제사장과 회중(의회): 성소 안 성막의 휘장(레 4:6, 17)과 그 앞 향단의 뿔들(레 4:7, 18) <그림: 성막>
- B. 족장(지파 지도자)과 평민: 성소 밖 번제단 뿔들에 바름(레 4:25, 30)

1.4.3.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의 꺼풀은 번제단에 태움(레 4:8-9)

1.4.4. 나머지 모든 부위는 진영 바깥에서 태움(레 4:12)

2. 속죄제의 목적과 의의

2.1. 성소를 ()하게 하는 제사

2.1.1.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는 제사는 번제다!

2.1.2. 죄는 관계 뿐만 아니라 죄가 범해진 곳, 특히나 성소를 더럽힘

- A.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게 됨(창 3:17)

B. 가나안 족속의 범죄로 그 땅도 더럽혀짐(레 18:24-25)

2.1.3. 속죄제는 죄가 더럽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레 16:19)

2.1.4.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게 됨

A.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

B. 화목제는 하나님과 성도간의 “교제”

C. 속죄제는 부정해진 성소의 “()”

D. 속건제는 죄가 가져온 피해에 “()”

2.2. ()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사

2.2.1. 죄가 일으키는 책임과 부정의 범위가 신분에 따라 다름

2.2.2.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이 민족 전체에 미치게 됨(레 4:3)

A. 그 심각성과 중대성은 제물을 통해서도 반영됨

B. 짐승 제물로는 가장 가치가 있는 수송아지가 드려짐

C. 죄가 성소 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D. 제물의 피를 성소 안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문힘

2.2.3. 죄의 심각성은 예배자의 ()에 비례하여 측정됨

A. 회중(의회)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 제사장과 동일

B. 족장(지파 지도자)는 숫염소를 제물로 드림 → 번제단 뿔에 피를 문힘

C.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목사? 안수집사? 목자?

2.3. 속죄제사의 현대적 의미

2.3.1. 다시 한 번 ()를 바라봄

A. 구약에서는 속죄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정결함이 회복

B. 구약에서는 예배의 장소(성소), 신약에서는 예배자 자신이 정결하게 됨

C. 하나님의 () (휘장), 우리의 () (향단), 우리의 () (제단)가 회복됨

D. 그래도 속죄제의 제물과 함께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의 몫

2.3.2. ()한 삶을 추구함

A. 죄는 여전히 성소를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고전 3:16)

B. 성결한 삶을 추구함 →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결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함

C. 부지불식 중에, 혹은 망각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지키지 못할 약속

D.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함(딤후 1:5)

E.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음(히 13:10-16) →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실천

3. 속건제의 의식과 예물

3.1. 속건제의 명칭

3.1.1. 속건제는 “배상,” “죄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삼(אָסַם)의 번역

3.1.2.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별된 두 개의 제사

3.1.3. 제물도 다르고, 의식도 다름

A. 속죄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의 ()

B.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에 초점

3.2. 속건제의 시기

3.2.1. 부지중에 여호와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레 5:15)

- A. 아마도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물을 부지중에 먹었을 경우
- B.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죄책감이 들 때(레 5:17)
- 3.2.2. 이웃에게 재산상의 ()을 끼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경우
 - A. 물론 나중에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
 - B.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과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

3.3. 속건제의 제물과 의식

- 3.3.1. 숫양이나 그에 상응하는 성소의 세겔(돈)
- 3.3.2. 이에 더하여 발생한 피해의 ()을 더하여 보상해야 함
- 3.3.3. 의식에 대한 묘사는 본문에서는 생략 → 화목제와 유사(레 7:1-6)
- 3.3.4. 제사의식보다는 제물의 가치와 보상이 중요한 제사

4. 속건제의 목적과 의의

- 4.1. 속건제의 영적 의미에 대한 해설이 발견되는 곳은 이사야 53장
 - 4.1.1. 고난 받는 종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속건제물로 드러짐(사 53:5-6, 10)
 - 4.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곧 거룩한 삶을 청산해 주신 것
 - 4.1.3. 그러나 속건제사를 포함 모든 제사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
 - A. 속건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감
 - B. 속건제물에 안수하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함(요일 1:9)
- 4.2. 죄인에게 청구되는 두 차원의 배상
 - 4.2.1. () 차원: 하나님에 대하여
 - A.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기대하심
 - B.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빚진 자들
 - C.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면, 하나님께 대한 채무가 발생함
 - D. 이 빚은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다 갚아 주셨음
 - 4.2.2. () 차원: 이웃에 대하여
 - A.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 B. 이웃을 사랑하라하신 하나님께와 피해를 입은 이웃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
 - C. 수직적 차원의 빚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되었지만,
 - D.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우리의 몫 → 120%로 더 후하게 갚아야 함(눅 19:8)